

COVID-19의 산업별·지역별 영향

March 2020

Clients & Industries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Contents

I.	들어가는 말	03
II.	산업별·지역별 영향 요약	04
III.	산업별 분석	05
	1. 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2. 반도체 및 스마트폰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4. 필수·일반소비재	
	5. 럭셔리	
	6. 유통 (오프라인 vs. 온라인)	
	7. 항공, 여행 및 호텔	
	8.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9. 금융	
	10. 부동산	
	11. 제약바이오	
IV.	Reference	25

I. 들어가는 말

전 세계 경제, 기업 및 사회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COVID-19가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만 단기적인 공급망 차질을 일으키고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였으나, 불행히도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되어 수요 및 공급 측면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 21일 이후 채권금리, 유가 및 주가가 폭락했고 수조 달러의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미국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5% 아래로 떨어졌고,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했다. 최근 시장은 변동성을 높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로 향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나 국채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절대적인 안전자산의 개념까지 희미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변동성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80.74)을 넘어선 82.69를 기록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3일 정책금리를 0.5%p 인하한 데 이어 15일에 1%p를 추가 인하하고 23일엔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포했다. 일본중앙은행(BOJ)은 긴급성명을 내고 자산 매입을 확대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중국인민은행(PBoC)도 2,4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금융시스템에 투입했다.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도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였고¹ 한국은행도 16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여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에 진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연일 하락세이며, 미국 및 유럽 전역의 전시예 준비에 준하는 대응체제 돌입 및 봉쇄조치로 경제활동이 섰다운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피치(Fitch Ratings)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상반기 동안 경기침체를 겪은 후 내년이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다만 2021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급격히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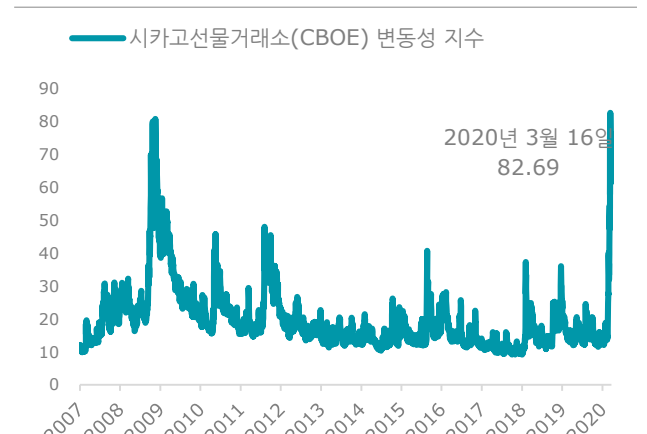
올해는 침체, 내년에는 급격한 회복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시나리오별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일 수 있다. 본 리포트는 COVID-19 상황의 U자형 회복 시나리오 및 L자형 침체 시나리오를 가정한 뒤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한 지역별·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림 1.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딜로이트 리서치

그림 2. VIX(변동성지수) 급상승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Louis, 딜로이트 리서치

II. 산업별·지역별 영향 요약

Sector Heatmap by Geography

본 리포트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다. 3월초까지의 진행상황을 토대로 산업별, 지역별 분석을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한 감염 상황과 경제 충격은 이 리포트를 작성하던 초기의 가설들을 빠르게 바꿔나갔다. 본 리포트를 발행하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역별 편차는 거의 무의미해졌고, 산업별로도 안정세를 전망할 수 있는 영역이 대부분 사라졌다. 그래도, 산업별 충격의 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붉게 변한 산업별 히트맵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였다.

섹터	한국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U자형 회복	L자형 침체
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M	N	M	N	M	N	M	N	N	N
반도체	N	M	N	M	N	M	N	M	N	N
스마트폰	M	H	M	H	M	H	M	H	N	N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H	H	H	H	H	H	H	H	M	M
필수·일반 소비재	N	N	N	N	N	N	N	N	N	N
럭셔리	M	M	M	M	M	M	M	M	-	-
유통 (오프라인)	M	H	M	H	M	H	M	H	M	H
유통 (온라인)	N	N	N	N	N	N	N	N	N	N
항공, 여행 및 호텔	H	H	H	H	H	H	H	H	H	H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H	H	H	H	H	H	H	H	H	H
금융	H	H	H	H	H	H	H	H	H	H
부동산	H	H	H	H	H	H	H	H	H	H
제약 바이오	N	M	N	M	M	M	M	M	-	-

U자형 회복	상반기 침체 후 빠른 회복 시나리오	H	막대한 영향
L자형 침체	장기화 및 더딘 회복 시나리오	M	중간 수준의 영향
		N	중립적 또는 적은 영향
		O	높은 수요/기회

U자형 회복 시나리오와 L자형 침체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 분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는 시점, 주요 국가에서의 감염확산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시점이 침체의 유형을 결정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의료시스템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에 압도되어 있는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은, 확산속도가 주춤해지는 데는 꽤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위기는 이미 현재진행형이고, 전세계적인 바이러스의 확산과 충격이 언제까지 진행될 수는 알 수 없다. U자형과 L자형 그 어디에선가 결정될 시나리오에 연연하기 보다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위기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의 위기가 가져올 새로운 노멀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III. 산업별 분석

1. 통신,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Global Key Point

COVID-19 발생 후 유례없는 이동 제한 및 대중집회 금지 조치로 전 세계적으로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공연, 스포츠 등) 행사 대부분이 중단 및 연기되었다. 반면 온라인 콘텐츠 수요는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 5G, AR/VR 및 OTT 기술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다시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활용되어 상호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COVID-19로 침체된 경기를 5G 기술 투자로 극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5G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통신산업은 외부 경기에 둔감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어 COVID-19 여파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온라인 활동 증가로 데이터 소비와 주문형 비디오 등의 수요가 증가하며 전반적인 실적은 선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5G 투자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3사는 2020년 상반기 5G 등 투자 규모를 2.7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통신망 투자가 ICT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예상³되고, 재택근무 증가 등 비대면사회로 전환하는 생활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통신장비 수요 증가와 전산 환경 고도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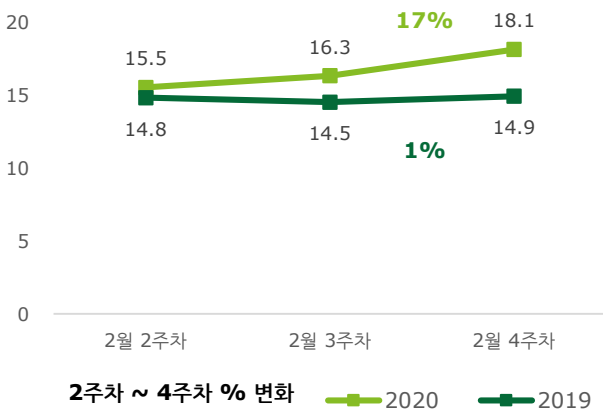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사람들의 실내 활동이 증가하며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 2월 IPTV 영화 유료 결제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했으며, 2월

둘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TV 시청은 17% 증가했다. 2019년 동기간 증가율이 1%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증가폭이다.⁴ 반면, 확진자 방문에 따른 상영관 임시 휴관, 상영회차 축소 등으로 1분기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화 관객수도 예상보다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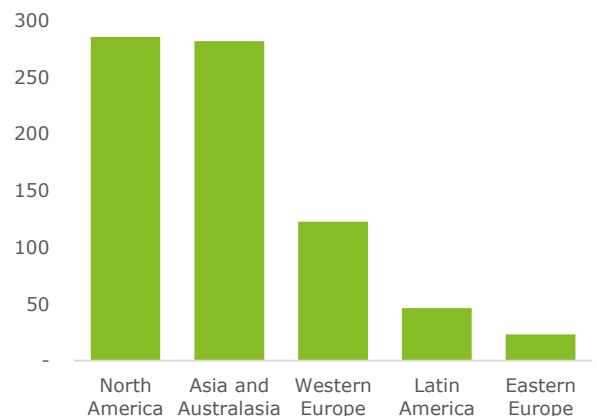
북미 지역의 모바일 텔레콤 산업의 매출은 약 285조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⁶ 하지만 5G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중국과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경기회복 수단으로 5G 확대를 선언한 한국, 중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아직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5G 투자 확대 발표는 없는 상황으로 미국은 2019년 발표한 5G 이니셔티브 계획을 기본으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한국 TV시청 (Total Day, Total Persons)



출처: 닐슨, 딜로이트 리서치

그림 4. Mobile Telecom revenue, 2020



출처: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VID-19 확산 우려에 따라 메이저리그야구 (MLB), 미국프로농구(NBA)와 같은 거대 스포츠 경기가 취소·연기되고 디즈니랜드가 폐쇄되는 등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온라인 미디어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버라이즌(Verizon)은 19일 기준 전주 대비 웹 트래픽이 20% 증가했으며, VPN 이용(34%), 비디오 스트리밍(12%), 온라인 게임 이용 (75%)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경제성장을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5G 투자를 가속화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중국의 5G 수요와 보급 프로그램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으나, 중국은 이미 2019년 말까지 5G 기지국을 13만개 설치하는 등 일정 수준의 5G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⁷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계속해서 유럽 국가들과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는 5년 내 중국의 5G 침투율이 50%에 도달하여 한국, 일본, 미국과 함께 5G 선두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중국 사업자들은 2020년에서 2025년까지 1,600억 달러 이상을 모바일 CAPEX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약 90%는 5G 네트워크에 투자될 예정이다.⁸

중국에서도 COVID-19 이후 오프라인과 온라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간에 희비가 엇갈렸는데, 중국 영화사들의 주가는 2월 초 약 10% 하락한 반면, 중국 SNS인 웨이보 이용자는 31% 증가하였고, 도우인(Douyin)을 포함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시청률은 35%나 증가하였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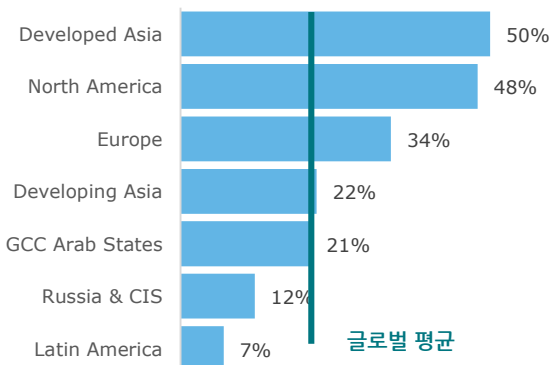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도 이동제한 및 봉쇄조치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4월 13-15일로 예정되었던 태국 최대의 축제인 송끄란이 연기되었고, 영화관, 경기장 및 기타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당분간 폐관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학교를 2주간 폐쇄하고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하도록 하였으며, 말레이시아도 전국적으로 봉쇄되어 식품품과 생필품을 판매하는 시장만 영업이 가능하다.¹⁰ 동남아에서도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수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인 HOOQ, Iflix 등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극심한 이동 제한과 봉쇄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오프라인 이벤트가 제한되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베니스 카니발, 스페인의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큰 행사가 취소되었고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는 1년 연기되었다. 반면, 온라인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넷플릭스(Netflix)는 유럽연합(EU) 권고에 따라 원활한 작동을 위해 스트리밍 품질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SensorTower에 따르면 넷플릭스 앱 신규 설치는 지난 주 스페인에서 34%, 이탈리아에서 57% 급증했으며, 이탈리아 2월 마지막 주 TV시청은 전주 대비 6.5% 증가했고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왔던 롬바디 지역에서는 거의 12% 증가하였다.¹¹

그림 5. 2025년 5G Adoption



출처: GSMA Intelligence

2. 반도체 및 스마트폰

Global Key Point

지난 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올해 견실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COVID-19가 업계 불확실성을 유발하여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년도 이월 재고 소진 비용, 마케팅·판촉 비용, 대리점·판매점 등으로의 sell-out 관련 비용 증가로 인하여 전반적인 비용 구조의 증가가 예상되며 스마트폰의 경우 2분기에는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의 전면적인 재편이 예상되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생산기지를 중국으로부터 전염병 이슈가 적은 생산기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COVID-19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여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등을 고려할 경우 반도체 산업에의 COVID-19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현재까지는 COVID-19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 COVID-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10~20%의 매출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으며, 지금이 반도체 cycle 상 상승 시기로 예측됨에 따라 산업에의 부정적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한 쇼크로 부진한 수출 실적을 보였던 한국의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8%, 3월 1일 부터 20일까지는 전년동기대비 20.3%의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며 전체 수출 물량 증가에 기여하였다.¹²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일시적인 반등으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내 수출기업 9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79.0으로 1분기의 102.2에서 급락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반도체 EBSI는 77.0으로 직전분기(136.1) 대비 낙폭이 컸으며 가격상승과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이 주요 애로사항이라고 분석했다.

표 1. 2020년 2분기 반도체 EBSI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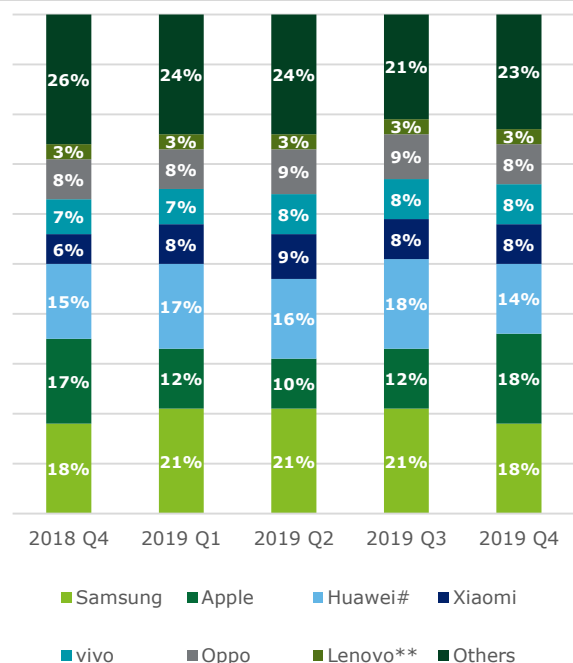
수출상당	수출계약	수출상품 제조원가	수출단가	수출 채산성
73.5	73.5	83.2	84.2	70.3
수출국 경기	국제수급	수입규제 통상마찰	설비가동률	자금 사정
76.4	70.4	77.1	82.8	65.7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내 스마트폰 제조기업의 경우, 중국 생산 의존도가 낮아 COVID-19로 인한 중국발 생산 차질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업체의 경우 베트남과 인도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인도 공장의 섯다운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 스마트폰 제조 기업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큰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은 소비재 성격을 띠므로 COVID-19 이슈가 지속될 경우 고객들이 제품 교환 주기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6.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점유율



출처: Counterpoint

화웨이에 HONOR 포함 / ** 레노버에 모토로라 포함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칭화유니그룹이 위치해 있어, 우한 폐쇄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중국정부는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소재 반입 및 인력 충원 등을 위한 특별 허가를 내주고 상하이 물류 센터까지 완제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¹³ 이에 따라 중국 반도체 생산기지들의 shut-down에도 전반적인 생산물량 수준에서 큰 폭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세계 스마트폰 부품의 상당량을 제조하는 국가이면서 2019년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의 27%를 차지하는 국가이므로, 제조 기반의 붕괴와 소비의 위축이 동시에 악재로 작용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지난 2월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약 38%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지난 1월 화웨이의 출하량 또한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한 1,220만 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 위축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COVID-19 이슈가 적은 생산기지로 탈중국을 시도하면서 중국 내 스마트폰 제조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미국 반도체 산업의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 만큼, 연초 COVID-19로 인해 빚어진 중국 경기 침체로 미국 또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IBIS World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반도체 수출의 대중국 비중은 26.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중국 제조업의 둔화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미국산 반도체의 20년 1분기 수요는 상당히 감소할 전망이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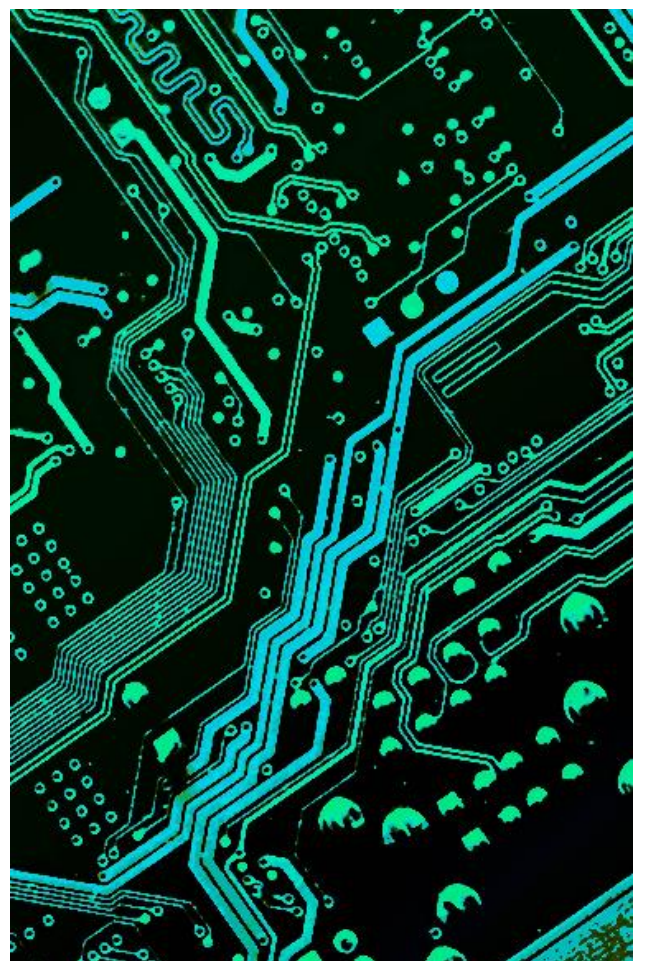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경우, 애플의 중국 생산 비중이 85%로,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아 공급 차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애플이 중국을 주요 타겟시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의 수요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도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2% 감소했던 것과 달리 동남아시아의 판매량은 1% 증가하였다.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GfK의 이사 알렉산더 데멜은 “COVID-19가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수요 하락으로 동남아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수는 있으나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¹⁵

유럽

반도체에 필요한 일부 장비가 유럽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 유럽으로의 COVID-19 확산이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ASML이 전세계 유일하게 극자외선용 노광장비를 생산하는데, 네덜란드가 국경을 통제하고 있어 국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Global Key Point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부품제조업체 간의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COVID-19 확산이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붕괴를 초래함에 따라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세계 자동차 부품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 내 기업들의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최근 유럽 및 북미 지역의 공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어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비롯한 전 산업에 걸친 도미노식 침체로 자동차 판매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고가 내구재인 자동차에 대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산업은 이번 COVID-19 사태 이전부터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의 증가로 매출 하향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가운데 COVID-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2020년 2월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21.6% 감소했다.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완성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지난 2월 생산과 수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4%, 25% 감소했다.¹⁶

표 2. 2020년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단위: 대, %)

구분	2020년		증감률		
	2월	1~2월	전월비	동월비	1~2월
내수	82,145	182,133	-17.8	-21.6	-18.2
수출	123,022	271,568	-17.2	-25.0	-27.4
생산	189,235	440,810	-24.8	-26.4	-27.9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발표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3월~6월) 등 자동차 소비촉진 정책과 신차 출시 영향으로 업황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COVID-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증시가 폭락하는 등 고가 내구재에 대한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상품성 높은 전략 차종의 연쇄적인 출시와 시장의 호평으로 2020년 실적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으나, 최근 좋은 성과를 냈던 미국과 유럽시장에서의 판매 타격과 공장가동중단 소식이 잇따름에 따라 COVID-19로 인한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환율인상과 저유가는 전통적으로 국내자동차산업에는 호재로 작용해왔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조의 동의를 토대로 한 생산유연성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중국

2020년 1월부터 2월 두 달간의 중국 자동차 판매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41%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20여년 간 볼 수 없었던 큰 폭의 하락이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가 급감함에 따라 2월 기준 재고가 81.2% 달하였는데,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판매 하락세를 보이던 1년 전 재고 53.5%를 초과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판매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도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소비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소비 증진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자동차 업체들의 업무 재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여 지난 3월 18일 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조치에 힘입어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기존 예측보다 원활하게 업무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⁷

미국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산업 시장조사기관인 LMC 오토모티브는 올해 약 1,700만대의 판매를 전망하였으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존 전망치를 1,65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2위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은 2010년에서 2018년 사이 중국산 자동차부품 의존도를 3배 가까이 늘렸고, 미국의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산 부품 고갈에 따른 생산 차질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OVID-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와 여행수요 위축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자동차 부품 부족과 북미 공장 가동중단과 같은 생산 차질 등의 요인이 수치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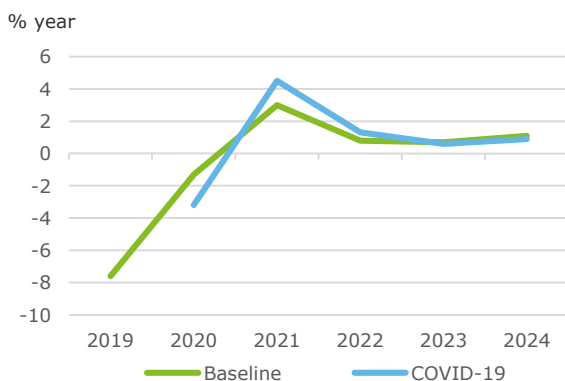
미국 정부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지와 지원책을 발표하였고, 미국 내 자동차 관련 단체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시행 연기와 더불어 세금 경감 등 다방면의 조치를 요구하며 자동차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해 자동차산업이 겪게 될 타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COVID-19가 유럽 내 본격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유럽 자동차산업 성장 전망도 하향조정 되었다.¹⁹ 유럽 자동차산업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이번 COVID-19 사태 이전부터 디젤 스캔들 및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성장 부진을 보여왔었기에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²⁰ 이러한 피해는 완성차 업체를 비롯하여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 체결된 완성차기업과 자동차 부품사간의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 부품사는 기존에 약속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독일의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은 이번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대략적인 손실규모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단축 근무와 같은 비용 절감방안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산 부품 부족 및 공장 셧다운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같은 공급 측면의 문제와 더불어 수요 측면에서의 타격 또한 부각되고 있다.

그림 7. EU15 자동차산업 전년비 예상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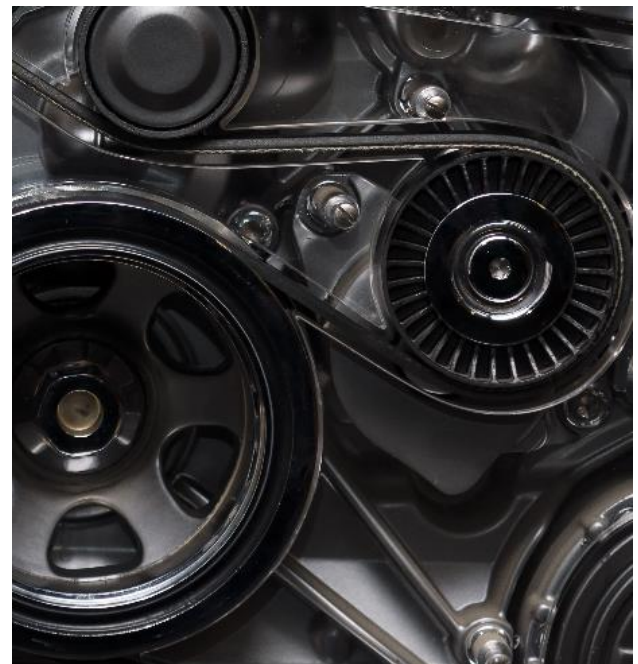
출처: Oxford Economics

유럽은 지정학적 특성 상 바이러스의 확산이 쉬운 환경인 만큼 국가 봉쇄, 이동제한령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오랜 역사를 가진 유럽 자동차 시장이 역대급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20년 1월 및 2월 동안 신규 자동차 등록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 9% 감소하였으며, 최근 여행 및 이동제한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탈리아의 2020년도 신차 매출은 전년대비 9.3%, 상용차 매출은 8.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²¹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대부분은 사실상 중국의 원부자재 및 부품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해 역대 최고치인 41만대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한 베트남의 경우, 2월 신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46%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역시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번 COVID-19 여파로 인한 2020년도 생산과 판매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3월 말부터 대다수의 베트남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대체 부품 발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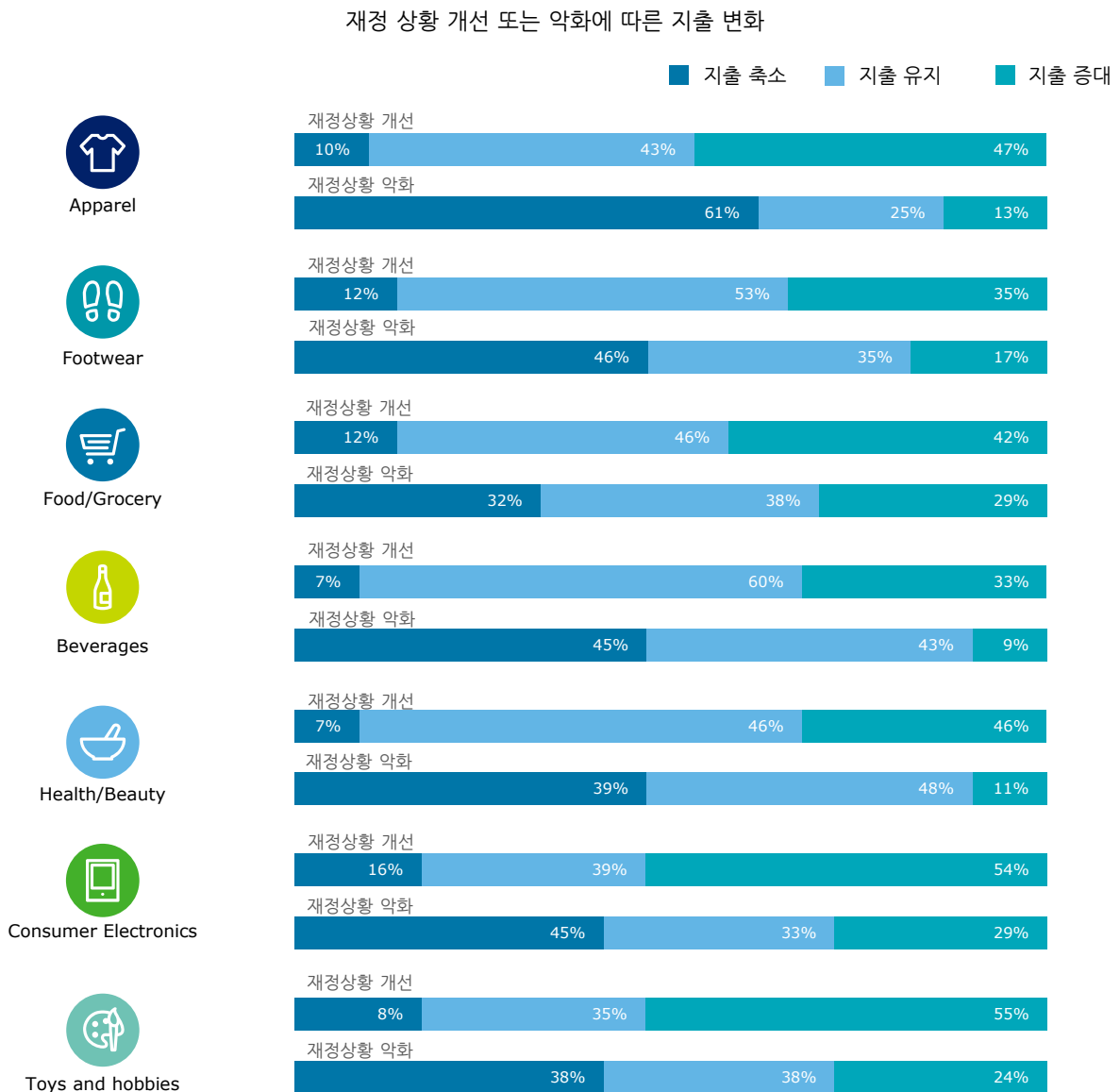


4. 필수·일반소비재

Global Key Point

의식주와 연관되어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하는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현재도 다른 산업에 비해 COVID-19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구매, 가정배달을 통해 수요가 유지되고 있고, 유통업체의 옴니채널 전략 확장 덕에 리스크를 분산 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팬데믹에 따른 수요 증가 현상도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가계소득이 하락한다면 필수·일반소비재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 불가피하게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그림8 참조).

그림 8. 소비자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출을 조정하며, 제품군에 따라 차이가 있다²³



* 소비자 가전 성장은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됨
 Note: 단수 차이로 퍼센티지 합계는 100%가 아닐 수 있음
 출처: 딜로이트 리서치

한국

이커머스 및 배달플랫폼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온라인구매 및 가정배달을 통해 필수·일반소비재 구매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 COVID-19 초반에는 쿠팡,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쇼핑몰은 위생관련 제품 및 식품재고 부족을 겪기도 했고, 가정용간편식 출고량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반면 식품에 비해 구매 여부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류 등의 매출은 감소했는데, COVID-19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1월에 이미 생활·가정용품(7.6%), 식품(7.7%) 등의 상품군은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패션·잡화(-2.5%)는 매출이 감소하였다.²⁴ 2월 이후에는 이동제한 및 오프라인 점포 영업단축이 시작되면서 패션·잡화부문의 매출이 더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8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기적으로 가계소득이 하락할 경우 의류나 신발에 대한 지출은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구매, 배달을 통해 소비재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맥도날드, 스타벅스는 비대면 배달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중국 22개 도시에서 식품 소매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Freshippo는 온라인 식품구매 수요 증가로 채용을 늘리기도 하였다.²⁵

하지만 전반적인 소매판매는 감소했다. 중국 1-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0.5% 감소했는데, 이는 12월의 8.0% 증가에 대비되는 수치이며, 특히 의류(-30.9%), 보석(-41.1%), 화장품(-14.1%)에 대한 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²⁶ 재량적으로 지출을 조정할 수 있는 소비품목은 경기 회복과 함께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외의 품목은 일상적인 니즈에 대응하는 상품 특성 상 사태 진정 이후에도 큰 반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및 유럽

현재 미국 및 유럽에서도 강력한 이동 제한, 상점 및 공공장소 폐쇄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바이러스 확산 억제 정책은 경제활동 및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국 및 유럽 전역의 의류, 화장품 소매업체들은 아시아 지역 공장으로부터 주문을 일시 중단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소비시장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8%, 21.3%로 두 지역의 소비 급감은 전세계적인 수요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자 미국에서는 화장지 등 필수소비재 수요가 평소의 3~5배 늘어나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식료품 및 비식품 필수소비재에 특히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오트밀 수요는 2020년 3월에 347.3% 증가하였다.²⁷ 미국 식품 배달 앱 Instacart의 다운로드 수는 2020년 3월 중순 기준 전월 대비 218% 증가했고²⁸ 아마존은 구매 폭증에 따른 배송지연으로 인력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반면 나이키가 휴점하는 등 패션 기업들의 잇따른 매장 폐쇄 조치로 의류 판매는 COVID-19 상황 종료 시까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

동남아에서도 COVID-19 전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필수·일반소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사례를 보면 2월 베트남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대비로는 6% 증가했지만 전월보다는 7.9% 감소했다.²⁹ 필수소비재 비축현상도 미국, 유럽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베트남 조사대상 소비자의 45%는 집에 물건 비축량을 늘렸다고 답했으며 25%는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더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생 관련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우 1월 마지막 주 손세정제 매출이 주 평균 대비 800%를 초과했다.³⁰

동남아 역시 식료품 및 식품 배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커머스기업의 사업기회가 확대되는 추세로, 싱가포르 온라인 식품 쇼핑몰 레드마트(RedMart)는 지난 2주 동안 식품배달이 20% 이상 급증하며 전례 없던 수준의 수요증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³¹ 반면 인도네시아 1월 의류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27.5% 감소하는 등 의류 부문은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³²



5. 럭셔리

Global Key Point

경기불황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명품산업 또한 이동 제한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와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명품 소비를 견인하던 중국의 경기가 COVID-19로 일시적으로 침체되면서 수요 측 타격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의 COVID-19 확산으로 해당 지역 내 생산 공장이 폐쇄됨에 따라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구매 비중이 높았던 전통적인 패턴을 벗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한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나, 카테고리 특성 상 온라인을 통한 현격한 수요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COVID-19 발생 이후 중국 및 유럽 내 명품 소비 감소에 따라 물량이 확보되면서, 일시적으로 국내 명품부문 매출이 증가했다. 국내 백화점 및 유통업체는 지난 2월, 전체 매출이 급감한 반면 명품 브랜드와 같은 사치재 부문은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 등지의 생산 공장 폐쇄가 이어지면서 물량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업 및 면세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한국 명품시장의 특성, 그리고 전월 대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프라인의 명품소비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명품 소비는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 마켓 사이트인 옥션은 지난 2월 명품 전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신발, 의류 및 패션 소품 부문은 각각 173%, 117%, 110%의 큰 폭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여느 경제적 불황기와 마찬가지로 '립스틱 효과'로 인해 명품 부문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장품의 온라인 매출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오프라인 채널에서 눈에 띄던 소비양극화 현상이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사치재 부문의 온라인 전략 재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미국 내 다수의 백화점 및 명품 브랜드들이 일시적으로 폐쇄함에 따라 미국 또한 명품 산업 매출의 급감이 예상된다. 미국 내 대형 백화점인 콜스(Kohl's), 메이시스(Macy's), 블루밍데일스(Bloomingdale's)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구찌, 생로랑, 발렌시아가 등을 보유한 케링(Kering)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매장을 2주간 닫기로 결정했다.

LVMH그룹 또한 뉴욕 및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루이비통, 디올, 지방시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여 매출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국 소비자들은 2019년도 명품시장 성장의 90%를 견인할 정도로 명품 산업 성장에 원동력이 되어왔으나, COVID-19의 확산으로 중국인들의 외출과 해외여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수가 줄어들고 있다. 영국 버버리의 경우 매출의 40%가 중국에서 발생되는데, 중국 내 총 64개 매장 중 24개가 휴업에 들어갔으며, 방문 고객 수가 80% 가량 감소 것으로 파악 되었다.³³ 이처럼 전 세계 명품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에 제약이 따름에 따라 명품 산업의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주요 명품 시장이자 공급처인 이탈리아 전국에 봉쇄 조치가 시행되어 구찌,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유럽 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급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스위스 브랜드 롤렉스 또한 3월 17일부터 열흘 동안 스위스 내 모든 공장을 폐쇄하였고, 스위스 시계 산업의 경우, 중국과 홍콩으로의 수출이 각각 52%,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⁴ 결국 공급의 부족이 소비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동제한도 영향을 미쳤는데, 밀라노 패션위크는 2월 말에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천 명 이상의 중국인 바이어, 디자이너, 기자 등이 여행 제한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했다.³⁵

6. 유통 (오프라인 vs.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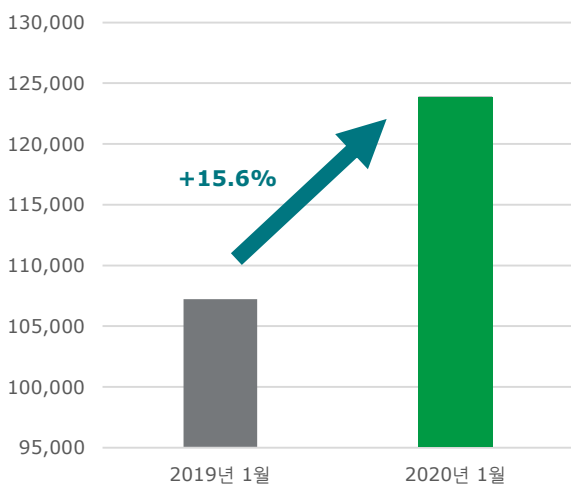
Global Key Point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출이 제한되거나 이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채널을 찾게 되면서 온라인 유통채널은 수혜를 보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채널을 처음 사용해 보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입률 또한 빨라지고 있다. COVID-19가 단기간 내 종식될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체 수요가 반등할 것이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온라인 강세는 유지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한국

COVID-19 사태 발발 이후 오프라인 유통업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는 확진자 방문에 의한 임시 휴업 매장의 매출 손실, 해외 입출국객 감소와 중국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면세점 타격, 집합시설 기피로 인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영업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외출이 감소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2월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0.6%, 할인점 매출액은 19.6% 감소하였다. 반면 온라인 쇼핑, 특히 모바일 쇼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1월 온라인쇼핑 총 거래액은 12조 3,906억원으로 이는 전년동월대비 15.6%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음식배달(69.3%), 식료품(19.1%), 생활용품(22.2%) 상품 군에서 온라인쇼핑을 통한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21.4% 증가한 8조 2,730억 원으로 온라인 총 거래액의 66.8%를 차지하였다.³⁶

그림 9.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 증가(억 원)



출처: 통계청, 딜로이트 리서치

COVID-19 상황이 단기간 내 종식된다면 제한된 외부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몰리면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온라인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온라인 강세가 지속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히 소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대한 사회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월마트와 타겟 등 미국 대형마트들은 일상적인 쇼핑을 하는 고객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JC 페니, 메이시스, 노드스톰 등 미국 거대 쇼핑몰들은 당분간 매장을 닫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고객들이 생필품, 식료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재기 행태로 보여 선반에 판매상품이 없는 재고 부족 상황을 겪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기피하는 반면 온라인쇼핑은 급증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식료품 판매 기업인 팜스테드(Farmstead)의 3월 첫째 주 주문량은 평소에 비해 30% 증가하였으며,³⁷ 여러 식료품 배달 앱의 다운로드 수가 몇 배씩 증가했다. 아마존의 경우 COVID-19 확산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급증하여, 풀타임 및 파트타임 직원을 10만 명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중국

중국 소비자도 온라인 채널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유통 기업인 JD.com의 1월 말부터 2월 초 온라인 식료품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하였다. COVID-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 소비자들의 80%가 온라인 장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절반만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³⁸

동남아시아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COVID-19 이후 온라인 유통채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독보적인 온라인 식료품쇼핑몰 레드마트(RedMart)의 경우 주요 식품 판매량이 평소보다 4-10배 늘어났으며, 개인 생활용품 및 가정용 청소용품 판매량도 2-5배 증가했다.

유럽

현재 일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봉쇄조치로 인해 휴업 중이다. 3월 둘째 주 이후 파리, 마드리드 등 주요도시의 오프라인 점포들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유럽 소매유통업 전반에 걸쳐 4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 반면 온라인쇼핑은 확대되는 추세로 프랑스에서는 2월 마지막 주 온라인채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이탈리아에서는 3월 첫째 주 기준 80% 이상 증가하였다.³⁹



7. 항공, 여행 및 호텔

Global Key Point

항공, 여행 및 호텔 산업은 COVID-19 확산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넘어 중남미, 동남아까지 COVID-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적 이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COVID-19 영향이 반기 이후 진정되더라도 수요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할 경우 항공사와 여행사, 호텔의 대규모 도산 및 구조조정이 우려되고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2월 항공 여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43.4% 감소하며 인적이동 제한이 항공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분석에 따르면 한국 노선 취항 항공사들의 매출액은 기존 계획 대비 11억~12억 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⁴⁰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운항을 중지한 데 이어, 국내선 운항을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섰다운 상태가 되었고, 현재 항공사들은 채권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사들은 이미 감원, 휴원 등 비용절감 조치에 돌입했으며 이러한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 시 2nd, 3rd tier 항공사들은 리스료 부담 등 유동성 문제로 도산할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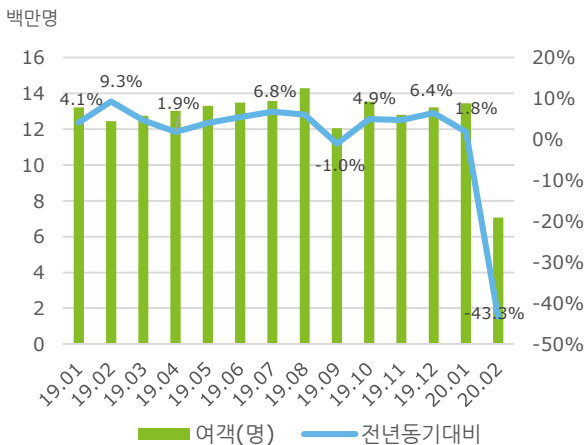
여행업 또한 입국 제한으로 인해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항공여객 수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여행비 지출전망은 83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호텔업도 인적이동 제한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3~4성급 호텔 다수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최근 워커히호텔이 객실 영업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히는 등 COVID-19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각종 행사가 취소되는 상황에서 객실 영업까지 중단되면서 호텔업계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및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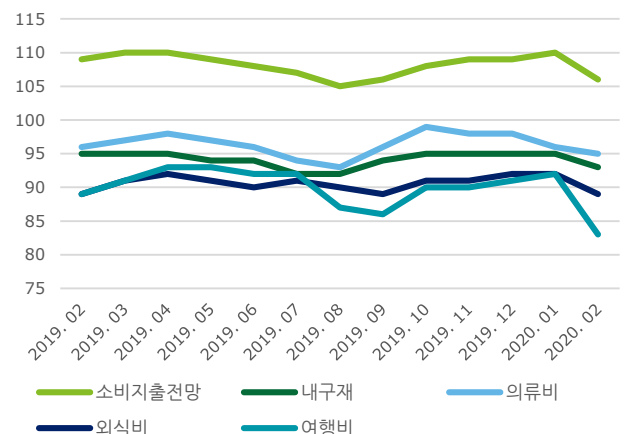
미국 및 유럽에서는 확진자 급증 및 인적이동 제한에 따른 산업 위축이 유동성 위기와 구조 조정으로 번져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유럽 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했으며, 19일엔 국무부를 통해 자국민의 여행경보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17일부터 30일간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ICAO는 국가별 분석을 통해 미국과 쟁쟁조약 지역(영국 및 아일랜드 포함)의 모든 항공편이 중단될 경우 기존 계획 대비 한달에 약 550만 명의 승객이 줄어들고, 이탈리아는 COVID-19로 1분기에 기존 계획 대비 약 9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⁴¹ 실제로 알리탈리아항공 (Alitalia)의 심각한 경영악화로 이탈리아 정부는 긴급 자금지원 및 국영화를 결정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그림 10. 한국 월별 항공 여객 수



출처: 한국공항공사, 딜로이트 리서치

그림 11. 항목별 소비자 지출 전망(한국)



출처: 한국은행, 딜로이트 리서치



호텔업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메리어트가 인력의 2/3를 해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으며, 힐튼과 하얏트 등 다른 호텔들도 숙박률 급감으로 인해 영업중단과 인력감축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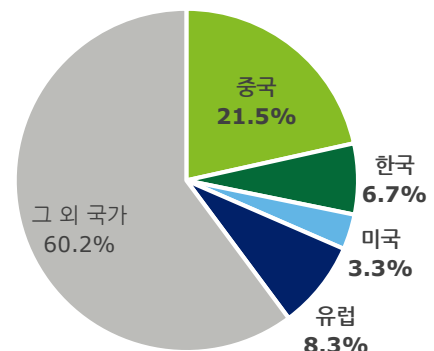
중국

COVID-19의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중국은 여객 수요 급감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중국관광연구원은 중국 여행업계 매출이 작년보다 20.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민용항공총국(CAAC)은 2월 한달 중국항공업계 적자액이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COVID-19 역유입 환자 증가로 국제선의 베이징 취항을 제한하는 등 인적이동 완화에 따른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

국가경제에서 관광업의 비중이 큰 동남아는 세계적인 인적이동 제한 조치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동남아시아 지역의 입국자 중 중국인의 비중이 21.5%를 차지하였는데, 이번 COVID-19 이후 중국인 여행객 감소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2018년 기준 태국과 필리핀의 관광업 GDP 비중은 20% 이상으로,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관광객 감소가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 분석했다. 베트남 관광자문위원회에 따르면 호텔 투숙률은 지역별로 20%~50% 하락하였으며 항공편 예약의 경우 국제선이 약 50%, 국내선은 약 40%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관광객 수가 예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그림 12. 국적별 아세안 입국자 비중(2018년)



출처: ASEANstats, 딜로이트 리서치

8. 정유, 가스 및 석유화학

Global Key Point

정유, 가스 및 화학산업은 COVID-19 및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인적이동 제한으로 인한 수송용 연료 수요 감소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악의 경우 원유 수요가 전년대비 73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제유가는 20달러 대 초반까지 폭락했으며, 정유업계 주가가 함께 추락하는 등 타격을 받고 있다. 가스 역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주요국 경제 위축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 소비 급감으로 LNG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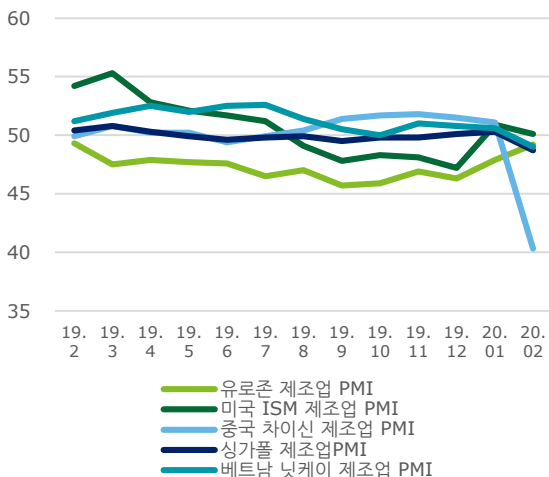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유가 하락에 따른 나프타 가격 하락으로 스프레드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차산업 등 전방산업 침체로 수요측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면 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일부 회복되겠지만 중국발 공급과잉 문제가 남아있어 경기회복 이후에도 업황이 긍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는 COVID-19 영향과 기존 문제점들로 인해 업황 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유사들은 COVID-19 이전부터 정제마진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며, 현재 정제마진은 업계 추산 손익분기점인 4~5달러를 밑돌고 있다. 국내 정유사의 수출의존도는 50%에 달하는데, 이 중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 정도이므로 중국 수요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COVID-19 영향이 단기간에 종식되더라도 글로벌 유가 요인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유업의 업황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될 경우 주요국 수요 충격과 자국 수요 급감으로 인한 중국의 밀어내기 물량으로 인해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무역협회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서 석유제품 지수는 59.7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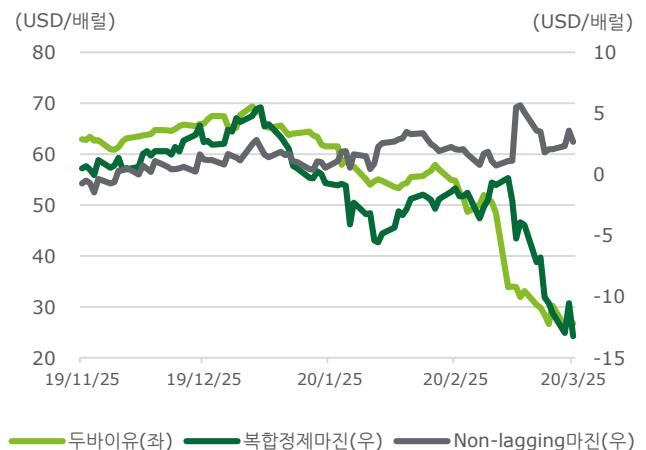
국내 석유화학업계도 COVID-19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석유화학 수출 물량의 절반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2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가 40.3을 기록하였고,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1~2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기업들의 정상화율이 98% 까지 상승했다고는 하나, 3월 중국 제조업 PMI 예비치가 46으로 아직 50 미만으로 관측되고 있어 중국의 회복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보통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원가절감 효과가 있지만 현재는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익성 회복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상반기 글로벌 화학사의 경기보수와 중국내 대규모 석화설비 증설 일정이 지연될 경우 스프레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그림 13. 국가별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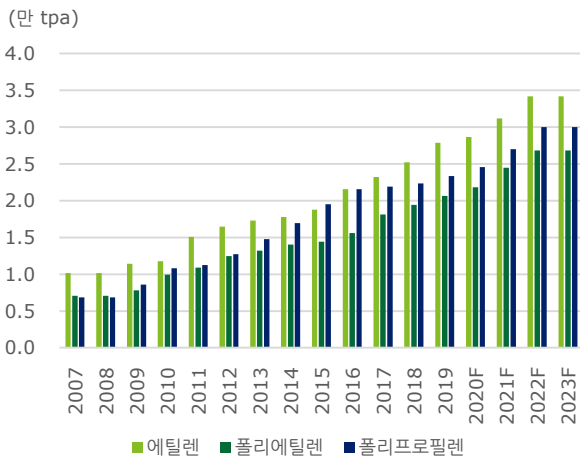
출처: IHS Markit, SIPMM Central Office, ISM, Investing.com, 딜로이트 리서치

그림 14. 두바이유 및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 추이



출처: Petronet, KB증권, 딜로이트 리서치

그림 15. 중국 석유화학제품 생산설비



주: 2020년부터는 전망치
출처: Fitch Solutions, EMIS, 딜로이트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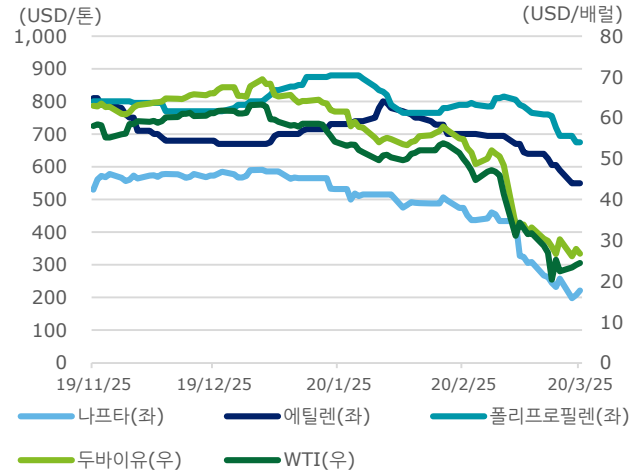
중국

현재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공급망 차질 및 생산 감소로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감한 상황이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석유화학 부문 수요가 COVID-19 영향을 벗어나 반등하더라도 에틸렌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2020~2022년 예정된 중국의 에틸렌 증설량은 1,500만 톤으로 현재 에틸렌 설비용량 2,700만 톤의 55%에 해당한다.⁴⁴ 이와 같은 설비확대에 따라 COVID-19 완화로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업황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가하락은 미국 정유산업 중 셰일가스 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망된다. 포브스는 유가가 배럴당 30~35달러에 머물 경우 셰일가스 감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무디스는 셰일가스 업체들이 2020~2024년 동안 상환해야 할 부채가 8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부채 부담과 20달러 초반까지 폭락한 유가로 셰일가스 업계 구조조정까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스 가격 하락에 따라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LNG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들의 재협상시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3월 PMI 예비치가 49.2로 50을 하회하면서 전방산업 업황 하락 및 수요 감소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

그림 16. 원유가격 및 석유화학제품 가격 추이



출처: Platts, KB증권, 딜로이트 리서치

유럽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제조업과 함께 석유화학산업도 악화될 우려가 크다. 프랑스 미쉐린(Michelin)은 유럽 공장의 운영을 약 1주일 간 중단할 계획을 밝혔으며,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3월 중순부터 최대 4월 19일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⁴⁵ 자동차 내장재, 타이어 등에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와 주요 산업계 수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외에도 3월 유로존 제조업 PMI 예비치가 44.8로 2월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COVID-19의 영향이 제조업 전반으로 퍼지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업황 또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

베트남의 2월 제조업 PMI가 49로 50 밑으로 하락하면서 경기위축으로 인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신규 석유화학공장 설립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 측면의 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2023년까지 270만 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며⁴⁶, 인도네시아는 롯데케미칼과 찬드라 아스리 페트로케미칼의 투자로 2025년까지 총 526만 tpa 규모의 공장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⁴⁷ 이로 인해 COVID-19 이후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공급량이 늘어나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9. 금융

Global Key Point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초저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금융업계는 실물경기 위축 및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COVID-19 발생으로 금리인하 정책이 신속하게 단행됨에 따라 초저금리로 인한 금융업계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OVID-19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수익을 낼 여지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미 장기간의 미국 저금리 및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수익이 악화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작년 한해 동안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올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기준금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순이자마진(NIM) 축소가 불가피해 지고 투자수익률도 하락하여 금융업 전반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실물경기 위축 및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건전성 충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만약 COVID-19가 장기화되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도산한다면 관련 대출이 부실화 되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항공사, 호텔 등은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급여, 임대료, 이자 등의 고정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고, 소매업체들도 매출 급감에 따른 재무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관련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COVID-19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은 중국의 경우, 기업들의 상환 불능 대출이 급증하여 은행 전체 대출의 6.3%까지 증가하였고 그 규모는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⁴⁸ 최근 각국 정부의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는 그만큼 경제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실물 경제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예측이 필요하다. 경기가 장기간 위축되면 정부의 자금 지원 정책을 은행이 적극 수용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화도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식 및 고위험 회사채 등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1%p 내린 이후 첫 거래일인 3월 16일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2.93% 하락했고, 아시아와 유럽의 주가지수도 연일 하락세이다. 극심한 자본시장 변동성으로 투자자들이 달러에 몰리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나 금 가격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이처럼 자산가치 하락이 지속되어 담보가치가 하락 및 자산의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자산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Fitch Ratings)는 금리인하로 인한 수익성 타격, 자본시장 변동성 증가 및 자산건전성 우려 등을 이유로 3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미국의 은행권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⁴⁹

추가적으로, 보험사는 COVID-19 이후 대면 채널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향후 보험상품 판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투자부문은 실물경제 영향으로 증권 및 펀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격적인 투자가 기피되고 위험회피 성향이 발현되어 주식 시장은 위축되고 채권시장이 대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표3. 국가별 기준금리 인하 추이

국가명	2월 기준금리	3월 인하폭	현재 기준금리
미국	1.75%	1.50%p	0.25%
EU	0%	동결, LTRO* 도입	0%
영국	0.75%	0.50%p	0.10%
중국	4.15%	0.10%	4.05%
인도네시아	5.00%	0.50%p	4.50%
필리핀	3.75%	0.50%p	3.25%
베트남	4.00%	0.50%p	3.50%
한국	1.25%	0.50%p	0.75%

*LTRO: 저금리 장기대출 프로그램

10. 부동산

Global Key Point

COVID-19에 따른 경기침체 및 각국의 긴급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어 거래가 중단될 수 있으며, COVID-19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유통, 외식, 호텔 등 서비스 산업이 침체되고 거래가 축소되어 부동산 시장에도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COVID-19 영향 완화로 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며,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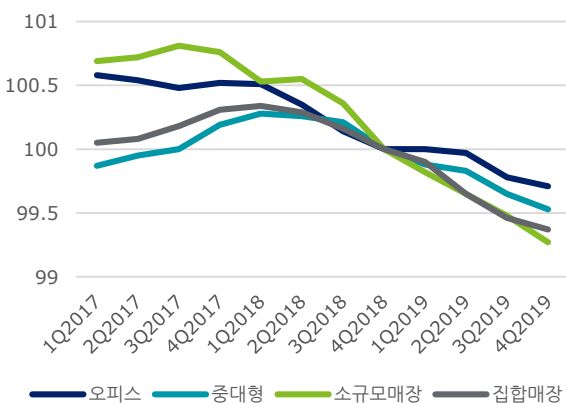
한국

COVID-19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가 지속 하락 중이고 부동산 시장 경기가 침체진입기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⁵⁰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 등이 침체되어 공실이나 임대료 갈등이 발생하는 등 이미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많은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은 최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매각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COVID-19 사태가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새로운 건설 개발 사업은 금융권의 자금지원 순위에 밀려 일시 중단될 전망이다, 주택은 거래가 축소되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 부동산 시장 개발도 각국의 이동 제한으로 사업 자체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하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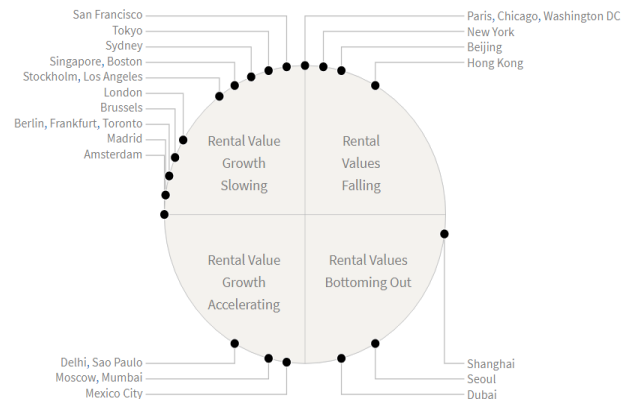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COVID-19 이전부터 둔화되고 있었다. 리얼캐피탈애널리틱스(RCA)는 2019년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500억 달러 미만으로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으며, 존스랑라살(JLL)은 미국 내 주요 도시 오피스 임대수익이 둔화 또는 악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 COVID-19로 서비스업 경기까지 악화되면서 3월 미국 서비스 PMI 예비치는 39.1로 크게 하락하여 임대료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미국 세입자들이 매장 휴업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기 어려워지니 면제나 납부 연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임대인과 의 갈등이 생기고 있고, 부동산 수익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1%p 인하 및 무제한적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림 17.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한국)



주: 4Q2018=100
출처: 한국감정원, 딜로이트 리서치

그림 18. 하강국면 진입한 각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주: 2019년 4분기 기준
출처: JLL Global Property Clock, 딜로이트 리서치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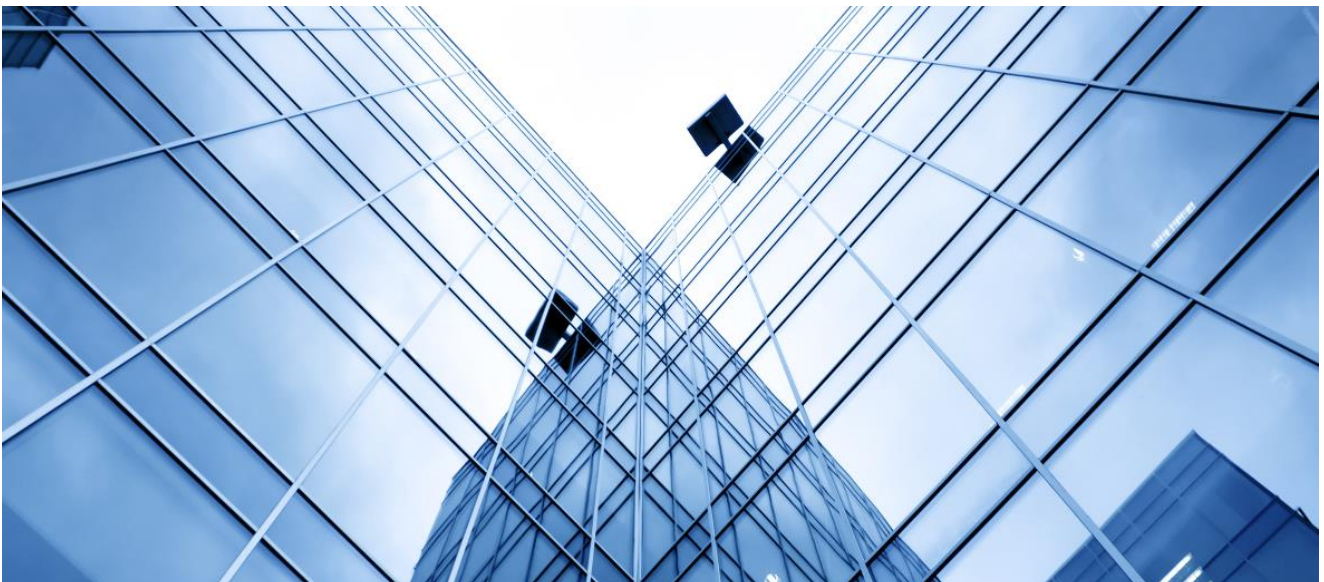
3월 유로존 및 영국의 서비스 PMI 예비치가 각각 28.4 및 35.7로 하락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존스랑라살(JLL)은 COVID-19 확산 이전부터 이미 유럽 주요 도시의 오피스 가격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COVID-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유럽중앙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이 시중 유동성 공급에 나서면서 유럽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중국

COVID-19 타격으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며 영향을 받았지만, 상황이 개선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심리도 차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인 쿠쉬먼 앤 웨이크필드(CUSHMAN & WAKEFIELD)는 COVID-19의 하방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외국인의 펀드관리회사(fund management firm) 소유제한이 4월 1일부터 해제됨으로서 중국내 부동산 투자 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⁵¹

동남아시아

COVID-19 유행으로 여행·호텔산업 및 식음료, 소매업종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 등에서 COVID-19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수요 감소에 따라 임대인들이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고 있다. 수익이 급감한 다수 임차인이 임대료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대료 인하를 통해 공실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⁵² 이는 동남아 국가의 상업용 부동산에 COVID-19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장기화 될 경우 동남아 부동산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B Richard Ellis Group(CBRE)의 아시아-태평양 투자 의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COVID-19 발생이 단기적으로 투자 지연과 관망세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75%의 투자자는 2019년과 비슷하거나 더 활발히 투자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⁵³ COVID-19로 인해 지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COVID-19 완화 시 회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제약 바이오

Global Key Point

중국의 사회·경제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중국산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았던 세계 여러 국가의 공급망 붕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세계 1위 복제약 생산국인 인도가 일부 의약품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미국 내 의약품 공급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자급률이 80%에 육박하는 한국의 경우, 공급망 보다는 일부 의약품에 대한 수요 감소, 임상실험 지연과 글로벌 학회 연기 등으로 인한 사업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한편 진단키트의 수출 기회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COVID-19 진단시약 및 키트, 백신 개발 등 활발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해당 산업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단기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약 업계의 경우, 원외처방 감소와 경증질환 전문 의약품 및 보조치료제의 매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가 상반기 이내에 안정화 될 시 하반기 회복세로 인해 올해 5% 이내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되지만 안정화 이후의 영업 회복 속도에 대한 고민이 업계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만약,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침체가 지속 될 시에는 약 10% 이내의 전체 매출액 감소를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부문의 경우, 임상 시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면적 계획 수정과 비용 증대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부문의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에 COVID-19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의료기기의 잠재적인 매출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요구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헬스 진단 및 관련 플랫폼 영역 개발이 또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부문의 경우, 병·의원 방문이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본 사태가 장기화 수록 전염병의 사회적인 여파에 대해 둔감 해지며 실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욕구로 인해 현재의 하락세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지난 2월 딜로이트가 중국 소재의 제약 및 헬스케어 기업 경영진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대상자의 76%가 COVID-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비지니스에 가장 큰 타격을 준 영역은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대한 제약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병원 내 출입 자체가

제한됨에 따라 의료전문가 대면, 의약품 소개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외 수요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 임상실험 재개의 어려움 등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9. COVID-19가 영향을 미친 주요 영역 3가지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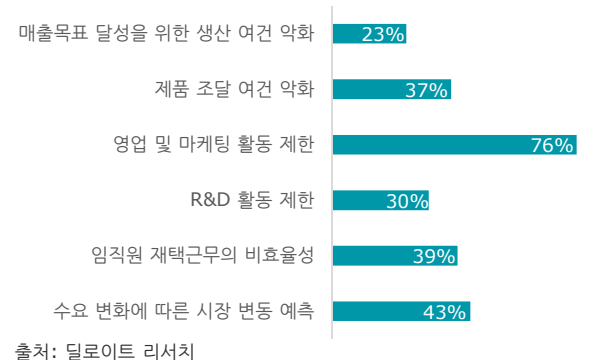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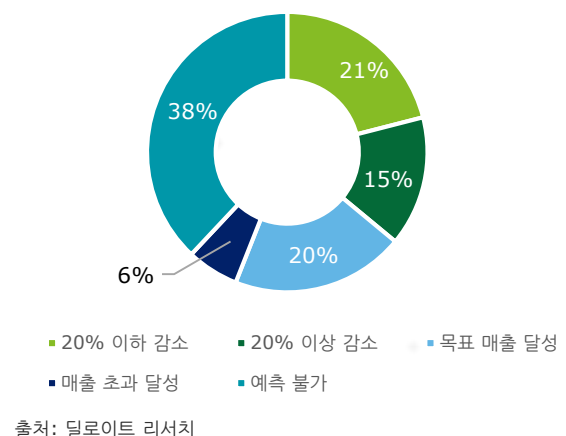


그림 20. COVID-19에 따른 2020년 예상 매출 증감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약 21%는 2020년도 자사의 매출이 20%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대상자 중 15%는 20%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응답자의 20%는 2020년에도 기존 목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6%는 기존 목표 매출을 초과 달성할 것이라 예측했다.⁵⁴ 이러한 긍정적 전망은 COVID-19로 인해 제약시장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높아짐과 동시에, 중국 원료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미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유럽

복제약의 약 40~50%를 인도에서 수입하는 미국의 경우, 인도가 일부 의약품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미국 내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3월 초, 인도 정부가 자국 내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13가지의 원료의약품과 약제조제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데 이어 3월 24일부터 21일 간 전국 봉쇄령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에서 의약품 사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COVID-19가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이 같은 인도의 적극적인 정책과 COVID-19의 장기화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의약품 공급부족과 가격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IV. Reference

1. Deloitte Insights, COVID-19 potential implications for the banking and capital markets sector, 2020.03
2. Fitch Ratings, Global Economic Outlook – March 2020 Lockdown, 2020.0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 통신3사 대표와 COVID-19 위기극복 방안 논의, 2020.03.06
4. Nielson, STAYING PUT: CONSUMERS FORCED INDOORS DURING CRISIS SPEND MORE TIME ON MEDIA, 2020.03.16
5. 삼성증권, 미디어(OVERWEIGHT) : '집콕'이 불러온 미디어 일상 변화, 2020.03.04
6. Economic Intelligence Unit, Telecommunications
7. Economic Intelligence Unit, Tech sector grapples with coronavirus fallout, 2020.02.06
8. GSMA, The Mobile Economy China 2020, 2020.03
9. Herbert Smith Freehills, COVID-19 ASIA: TECH INDUSTRY LESSONS AND INNOVATIONS SO FAR, 2020.03.12
10. The Asian Banke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tensify COVID-19 control measures, 2020.03.17
11. Nielson, STAYING PUT: CONSUMERS FORCED INDOORS DURING CRISIS SPEND MORE TIME ON MEDIA, 2020.03.16
12. 관세청, '20년 3월 1일 ~ 3월 20일 수출입 현황, 2020.03.23
13. 닛케이 아시안 리뷰(Nikkei Asian Review), How China's chip industry defied the coronavirus lockdown, 2020.03.18
14. IBIS 월드(IBIS World), Industry Impacts of the Coronavirus, 2020.02.13
15. GfK(Growth from knowledge), Consumers across Southeast Asia's six key markets bought 1.2 million more smartphones in 2019, 2020.03.04
16.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Auto Daily, 2020/03/13
17. 한국자동차협회 (KAMA), Auto Daily, 2020/03/20
18. World Socialist Web Site, Global Auto Industry in Downward Spiral as Coronavirus Spreads worldwide, 2020/03/14
19. Oxford Economics, Motor Vehicles & Parts Q1 2020
20. KOTRA, COVID-19가 멈춰 세운 독일 자동차산업, 2020/03/23
21.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ronavirus to hit Italian car production and sales in 2020, 2020/03/09
22. KOTRA, 베트남 자동차 판매 성장세, 2020/03/10
23. Deloitte Insights, The consumer products bifurcation: Opportunities to accelerate growth and future proof in the face of a potential recession, 2019.04.29
24. 산업통상자원부, '20년 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6.6% 증가, 2020.02.28
25. McKinsey & Company, Coronavirus COVID-19: Facts and Insights, 2020.02.28
26. Deloitte, Weekly global economic update – March 2020, 2020.03.24
27. Statista, Sales growth of food and beverage products due to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as of March 2020, 2020.03.19
28. Statista, Grocery delivery app download growth due to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as of March 2020, 2020.03.19
29. Viet Capital Securities, COVID-19 outbreak depresses economic data, 2020.02
30. Nielson, NIELSEN INVESTIGATION: "PANDEMIC PANTRIES" PRESSURE SUPPLY CHAIN AMID COVID-19 FEARS, 2020.03.02
31. Herbert Smith Freehills, COVID-19 ASIA: TECH INDUSTRY LESSONS AND INNOVATIONS SO FAR, 2020.03.12
32.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nsumer data show some resilience to coronavirus, 2020.03.11
33. The Economist Times, Coronavirus hits retail: Uniqlo shuts almost half of 750 China stores, Burberry sees 80% decline in footfall, 2020.02.07
34. Bloomberg, Rolex Shuts All Plants and Prepares for Worst Year Ever, 2020.03.19
35. Forbes, Coronavirus Threatens To Wipe Out 5 Years Of Gains In The Global Luxury Market, 2020.02.27
36. 통계청, 2020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 2020.03.04
37. Retail Dive,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on retail, 2020.03.05
38. Bain & Company, Defending Retail against the Coronavirus, 2020.03.11
39. Nielson, COVID-19: THE UNEXPECTED CATALYST FOR TECH ADOPTION, 2020.03.16
4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Civil Aviation, 2020.03.18

IV. Reference

4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Economic Impacts of COVID-19 on Civil Aviation, 2020.03.18
 42. 코트라(KOTRA),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여파 극복 위한 기업 지원정책 발표, 2020.03.18
 43. 한국무역협회(KITA), 2020년 2/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2020.03.20
 44. 하나금융투자, 석유화학: 지금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확률은 매우 낮다, 2020.03.05
 45. 코트라(KOTRA), 코로나가 멈춰세운 독일 자동차산업, 2020.03.23
 46. 한국무역협회(KITA), 2019년 베트남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2019.08
 47. 코트라(KOTRA), 인도네시아 석유화학산업 최신 동향과 시장분석, 2019.03.14
 48. Bloomberg, China's Hurting Banks Brace for Worst-Case Economic Scenario, 2020.02.10
 49. Fitch Ratings, APAC Banking Outlooks Negative as Coronavirus Heightens Risks & Sector and Rating Outlook for U.S. Banks Revised to Negative, 2020.03
 50. KB금융지주 경영연구원, 2020 KB 부동산 보고서(상업용편), 2019.12
 51. Cushman & Wakefield, POST COVID-19 REAL ESTATE CHANGES IN CHINA: THE ONES TO WATCH IN 2020, 2020.03.16
 52.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시장뉴스] 베트남에서도 임대료 인하 움직임 확산, 2020.03.20
 53. CBRE, Asia Pacific Investor Intentions Survey 2020, 2020.03.19
 54. Deloitte, COVID-19: Pharma Industry Survey Results, 2020/02
-

COVID-19 기업경영위기 지원센터

- 재무진단과 현금흐름 분석 지원, 순운전자본 개선
- 운영효율성 개선을 통한 수익성 향상
- 경영연속성관리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지원
-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위기대응 전략
- 합리적 절세 전략을 통한 현금흐름 개선 지원
- 비핵심사업 정리, 투자 유치, M&A 지원

오성훈 **Partner** / 고객산업본부 본부장
Email: sunoh@deloitte.com

박경은 **Manager**
Email: kyungepark@deloitte.com

HOT LINE
02) 6099-4336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312,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